

성철 스님은 왜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을 강조했을까?

백련문화재단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성철 스님이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을 강조했던 것은 기복이 아닌 깨달음을 얻어 증생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실천이라는 간절한 당부”였음을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의 일상예참과 선·삼 속에서의 내 마음을 밝히다’를 주제로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열었다.

석길암(한국불교연구원), 최원섭(성철 선사상연구소)씨는 ‘현대 한국불교 의례에서 능엄주 독송이 갖는 의미’와 ‘성철 스님 일상예참의 연원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한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은 자력불교, 실천불교의 일상 수행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 “능엄주 독송은 선문의 강렬한 종파 의식 발현”

석길암씨는 발표문에서 “한국불교를 일컫는 화쟁불교는 무색무취한 중합불교를 뜻하는 것”이라며 “성철 스님은 중합 불교가 아닌 선문으로서의 강렬한 종파 의식 강조를 위해 능엄주 독송을 강조했었다”고 주장했다.

선종에서 능엄주 독송의 연원에 대해 석씨는 영명연수의 <중경록>에서 <능엄>

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예로 “<능엄경>이 교선(敎禪)을 두루 통섭하고 있음과 동시에 선문의 돈오주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때문에 <최수백장정규> 등 선문의례에서 능엄주 독송이 유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고려 말 개항으로 추정되는 <대불정다라니>와 ‘승려가 되려는 자는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여 <반야심경>, <금강경>, 능엄주의 송경으로 시험한 후에 예조에 보고해 정전을 받고 도첩을 주라’는 <세조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고려 말-조선 초를 기점으로 능엄주 독송이 확산됐다”고 발표했다.

봉암사 결사를 통한 의례개혁에 주목한 그는 ▲법당 안 신앙대상 정리 ▲불공(佛供) 정비 ▲<천수경>을 배제한 능엄주 독송 강조 ▲선종단 예불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체 ▲일상생활의 의례화 진행 ▲심배, 일천배, 삼천배 관행 시작으로 정리했다. 특히 성철 스님이 관음신앙으로 표현되는 <천수경> 대신 능엄주를 독송하도록 한 것에 대해 “관세음보살을 통한 현세구원의 기복적이고 의타적인 <천수경>보다 보현행원의 실천 불교로 능엄주를 강조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능엄경> 제7권의 능엄주 수지를 위한 제적이 유득 정정한 계행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들어 “당시 일반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들이 유행하던 것과 무



“현대한국불교의례에서...”를 발표한 석길암(가운데)씨와 논평자 서재영(오른쪽), 사회자 황순일 교수.

석길암 선종의 강렬한 종파의식 강조위한 것

최원섭 매일 예참 통한 생활 속 깨침의 실천

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보였다.

봉암사 결사가 “선종으로서의 강렬한 자각을 가진 수행결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것은 봉암사 결사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학설, 즉 간화선 선종의 발현이라는 김광식 교수(부천대)의 주장과 율 중심의 결사였다는 김호성 교수(동국대)의 주장 가운데 김 교수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봉암사 결사의 초석이 된 공주규약은 간화선 바탕의 실천불교로의 개혁이다. 성철 스님이 중국 총림법을 한국 실정에 맞춘 것”이라는 석씨는 “공주규약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의례인만큼 봉암사 결사를 계속 결사로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백팔 예참은 생활 속 깨침의 실천” 최원섭 연구원은 “백팔예참은 부처님에 대한 자기 참회가 아닌 매일의 예참을 통한 생활 속 깨침의 실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성철 스님이 절하기를 강조한 것은 입장을 녹이는 자기 수행을 넘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치라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당상을 만나기 전 3000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스님이 아닌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의미고 절을 통해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최 연구원은 “절하기는 절을 통해 변화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도록 가르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예불대참회문>의 연원이 <선문일송>에 있다고 밝힌 최 연구원은 <선문일송>에 실린 <예불대참회문>이 현행 <예불대참회문>과 거의 일치한다는 증거를 보였다.

또 1969년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품>이 원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예불대참회문>은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품>에서 보현행원품 번역 부분만 빠져 있고 나

머지 부분은 같다.

이것을 근거로 그는 “성철 스님이 강조하는 예참의 사상적 배경이 보현행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성철 스님은 수행의 분명을 간화선에 두고 있지만 중생을 향한 실천의 입장에서 보현행원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 “불탄법어는 성철 스님 깨달음의 정수”

한편 박진생 원장(정신과 전문의·박진생 신경정신과의원)은 ‘성철 스님 불탄법어 독송의 정신치유 효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불탄법어 독송법을 소개했다. 불탄법어는 성철 스님이 1981년 중정 취임 이후 열반하신 1993년까지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발표한 짧은 메시지를 모은 것이다.

박 원장은 “짧은 불탄법어에는 성철 스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녹아있다”며 직접 독송 시범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불탄법어 독송을 권했다. 불탄법어 독송으로 불안증에 시달리던 수원생, 부부간 불화로 이혼위기를 맞은 부부, 동료들과의 불화로 직장생활이 어렵던 교사 등을 치료한 임상사례를 근거로 “본인 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불탄법어 독송법은 ‘Word of Blessing’이라는 제목으로 영역, 2005년 국제정신치료학회에 소개해 국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원효의 화쟁사상은 존재론적 혁명

천태종 관문사 제10회 천태국제학술대회 개최

“원효의 화쟁사상은 사회적 소유관계를 자연적 존재관계로 치환시키는 마음의 혁명이며, 이것이 인류가 미래에 펼쳐야 할 복락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17일 천태종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화(和)사상’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천태국제학술대회에서 김형호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주장한 내용이다.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과 그 철학적 함의”를 발표한 그는 인류의 발전을 세상의 물질적 편리도 모호고자한 경제기술혁명과 정신적 선함을 도모한 사회도덕혁명으로 나누었다. “경제기술혁명과 사회도덕

혁명 모두 기술이성과 도덕이성으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소유론적 사고방식”이라 했다. 그 결과 인류는 물질적 편리도 증득되고, 자가성에 매몰된 독선과 배타에 들들게 돼 불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김 명예교수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시했다. <신심명>의 ‘유즉시무 무즉시유(有卽是無 無卽是有)’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을 예로 들었다. “<신심명>의 유·무와 <반야심경>의 색·공이 같으며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해결의 답이다. 원효의 화쟁사상도 이를 다른 각도에서 풀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상생과 상극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공존하는 자연적 화쟁의 존재방식을 소개했다. 태풍으로 바다의 생명들이 위협받지만 동시에 바다를 정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나 비행기가 뜨는 것이 공기의 부력 때문이지만 결국 부력은 공기저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상생과 상극이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상관적 관계로 공존함을 피력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같은(同)과 다른(異)을 이중적 구조로 읽고 동일(一)과 비동일(非一)을 상호 상응하는 구조로 본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만사가 모두 상관적 차이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철학이며, 존재의 상관적 차이는 실상 진여(眞如)인 공성(空性)의 표현을 아는 것으로 규정된 그는 이를 ‘존재론적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론적 혁명은 세상을 장악해서 개조하려고 하며 분별과 선택을 강조하지만 존재론적 혁명은 이중적 대법법(待對法)으로 대공정의 길로 가게 한다”며 마음을 비우려는 회심(回心)을 주문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과 일본, 독일의 학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념, 종교, 인종간 대립 갈등이 인류 불행의 원인이고, 불교의 화(和)사상이 이의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

한편 이시이 코세이 교수(일본 구마자와대학원)는 ‘쇼토쿠 태자의 작(作)으로 전하는 ‘한법17조’의 화(和)의 원류’를 발표했다. 일본 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쇼토쿠(聖德) 태자가 만든 ‘한법17조’를 소개한 그는 ‘한법17조’의 전반에 걸친 ‘화를 존중하고 중시해야 한다(以和爲貴)’는 구절을 근거로 ‘화(和)’는 일본의 전통사상이며 불교 사상이라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학술단신

■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법산)는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달라미 라마와 20년째 수행>의 주인공 정천 스님 특강과 김호성 교수(동국대)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02)2260-3130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개강안내 12월 6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태임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임병국)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계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고대, 총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검쟁세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조증감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1577 ~ 1276
일요일 휴일 ~ 심리치유